

双龍洋灰聞慶工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來日



許 金 廷

〈雙龍洋灰(株)聞慶工場 品質管理室長〉

1. 工場概要

당공장은 慶尙北道와 忠清北道 경계에 위치한 慶尙北道 聞慶郡 店村邑 新機里에 자리 잡고 있다. 1953년 UNKRA 資金を 배정 받아 工場敷地選定 예비 기초조사를 한 결과 현공장 위치를 최적지로 내정하고 1955년 9월 네델란드 F. L. Smidth 社에서 건설공사를 착수하여 1957년 9월 26일 준공식을 갖게 된 당공장은 年生産能力 24만톤(12만톤 2基) 규모의 공장으로 출발하였다. 그후 '61년과 '68년 두차례의 증설에 의해 현재 4基의 kiln을 보유하고 公칭능력 年産 48만톤 규모의 공장이 되었으며 1975년 1월부터는 大韓洋灰工業株式會社에서 운영권이 雙龍洋灰(株)로 넘어와(흡수 합병)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당공장은 국내 유일의 濕式製造 工程에 의해 시멘트를 생산해내는 공장으로서 東洋세멘트(株)(당공장 준공 당시 年産 8만여톤)와 더불어 시멘트 산업의 선구자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민족 상잔의 비극 6.25가 남기고 간 잿더미 속에서 재건을 위해 발버둥치던 시절, 국가적 宿願事業이었던 거대한 設費投資와 高度의 製造技術을 필요로 하는 시멘트 산업의 첫번째 열매가 바로 지금의 聞慶工場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살펴본 당공장의 연혁

은 다음과 같다.

〈 沿革 〉

- '54. 6 ; 우리나라 정부와 UNKRA 합의에 의거 시멘트 공장 설치 결정
- '55. 2 ; F. L. Smidth 社와 공장 건설 계약 체결
- '55. 11 ; 공장 기공
- '56. 12 ; 大韓洋灰(株)에서 공장 운영권 인수
- '57. 9 ; 공장준공(年産 24만톤)
- '61. 1 ; 1차증설(年産 36만톤)
- '68. 9 ; 2차증설(年産 48만톤)
- '75. 1 ; 雙龍洋灰(株)에서 공장 운영권 인수

2. 當工場의 特徵

전후 以北과의 대치 상태를 고려하여 石灰石 鑛脈의 最南端에 위치토록 설립된 당공장은 특히 석회석이 시멘트 제조에 적합한 化學組成을 이루고 있어 석회석 이외의 副原料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均一한 Modulus의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으며 또한 완전 濕式工程으로서 원료의 混合狀態가 양호하여 燒成性이 좋은 관계로 품질이 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좋은 품질의 제품을 消費者에게 공급시켜 주고 있다. 특히 당공장은 종업원 福祉厚生施設에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여 既婚 無住宅 社員 전원을 입주 시

킬 수 있는 30餘棟의 사택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미혼자를 위한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독신료 2동외에 영화관, 이발관, 목욕탕, 부설 유치원 및 병원 그리고 5면의 테니스 코트를 비롯한 농구, 배구, 탁구장 등 부대 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명실 공히 대기업의 생산공장으로서 그 면모를 자랑할 수 있다 하겠다.

3. 轉換期

1975년 1월 大韓洋灰(株)에서 雙龍洋灰(株)로 흡수 합병됨에 따라 당공장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 B. C Oil 專燒

雙龍洋灰(株)에서 운영권을 인수한 다음해부터 본격적이고 과감한 老朽設備의 교체와 더불어 kiln 燃燒方式을 석탄혼소에서 B. C Oil 전소로 전환시킴에 따라 품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생산량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기 시작하였으며

2) Floation 工程 稼動中止

뿐만 아니라 막대한 투자를 하여 鑛山開發을 시행함과 동시에 광산 운영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을 유감 없이 발휘한 결과 濕式工程에서만 볼 수 있는 原料調整에 필요한 浮遊選鑛(Floation) 공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제조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수많은 사항을 개선하여 생산량 증대, 원가 절감에 이바지하고 있다.

3) 洗淨集塵施設

또한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집진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인근 부락 주민들과의 公害問題로 인한 시비가 있었음에 대하여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통감하고 低廉한 投資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당공장 자체 기술진에 의해 洗淨式集塵裝置를 설치 가동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잘 운영 관리시켜 오며 따라 인근 주민들과의 유대 증진은 물론 集塵된 원료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어 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당공장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는 바이다.

4) 工場 Q · C 分任組活動 強化

이와 같은 제조 기술상의 문제외에도 당사에서는 1976년부터 Q. C 분임조 활동제도를 도입하여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전개시켜 오며 따라 그동안 각종 Q. C 분임조 全國競進大會에서 입상하는 등 그 활동 실적이 뚜렷하였을 뿐 아니라 종업원의 自己啓發, 相互啓發을 통한 회사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他工場의 모범이 되어 오고 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공장은 명실 공히 현장의 5大 사명인 品質向上, 生産性增大, 原價節減, 安全管理, 人間關係改善 등의 수행에 만전을 기한 결과 1979년도에는 48만톤의 생산 설비로서 61만톤을 생산해 내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4. 1980年代의 設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革新을 이루어 工場經營에 전환을 가져 오기는 하였으나 당공장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에너지 多消費 산업인 시멘트 제조업체 전체의 당면 과제인 에너지 절감에 따른 문제가 당공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며 특히 타공장과 비교하여 濕式製造工程의 불리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에너지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勞動生産性面에서도 타공장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현재 濕式製造方式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망의 東海工場 560만톤 증설 공사가 지난 4월 성공리에 준공된 것을 감안한다면 내륙에 위치한 당공장의 지역적인 특수성에 미루어 볼 때 최신 시설을 구비한 최신식의 공장으로 변모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국내 유일의 濕式工場이 사라진다는 아쉬움은 남게 되겠지만 말이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하며 대망의 80년대를 설계해 본다.